봉축 영상메시지

친애하는 불자와 국민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진리를 구현하시고, 오늘도 중생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삶터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웃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으뜸으로 받들어야 할 가치는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웃의 땀과 정성이 있기에 아름다운 정신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자연생태의 재앙이 생명을 위협하고, 야만적인 전쟁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고, 분단의 장기화가 민족공동체를 위협하고, 양극화가 사회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탐욕과 증오를 내려놓고,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그리하여 연대와 협력의 손을 잡고 평화와 행복의 길에 동행합시다.

중생을 떠난 부처는 없으며 고통의 사바세계를 제도함이 바로 정토세계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